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계:
자기결정성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이희선(Heesun Lee)¹ · 권영애(Yongae Kwon)²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achon University

²Yongin Sanghyun Elementary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 children. The participants were 457 sixth-grade elementary students in the Gyung-gi province.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K-SPQ-A, Psychological Control Scale.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product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obtained using SPSS (version 18.0), and tests of the mediation were performed using SEM with AMOS (version 18.0).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at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exist. Also a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was negatively related to a child's self-directed lea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 child's self directed learning was fully mediated by self determined motivat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high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was negatively affected that development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주제어(Keywords) : 심리적 통제(psychological control), 자기결정성 동기(self-determined motivation), 자기주도적 학습(self-directed learning)

I. 서론

21세기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로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적응능력을 필요로 한다. 즉, 지식이나 정보를 스스로 획득하여 가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학습에 있어서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습을 주도해가는 아동이 미래사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이때 요구되는 능력이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최근 교육의 방향도 새로운 미래의 인간상, 즉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개방되어 있는 개인, 지속적으로 자기발전과 창의적 개인

Corresponding Author : Heesun Le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achon University, 1342, Seongnam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461-701, Korea Tel: +82-31-750-5964, Fax: +82-31-753-8828, E-mail: hslee@gachon.ac.kr

본 논문은 2012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12-R218)

© Copyright 2012,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을 키우는 열린 학습을 지향하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습과정이나 방법, 개인이 지닌 특성, 교육목표로서의 역할 등의 초점을 둔 영역에 따라 개념의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특성적 측면으로 간주하고 '교사, 부모 등 타인의 조력이 있거나 없는 모든 학습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 실행, 평가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주도적인 학습능력'으로 정의한다. Knowles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학습자 자신이 출현 수범하여 자신의 요구를 판단하고 학습목표를 정하는 동시에, 학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 시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개념화 하였다. 이는 아동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면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의 자율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37].

우리나라는 2001년 7차 교육과정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이에 발맞추어 자기주도적 학습에 근거한 입학사정관계가 대학 입시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가정과 학교교육에서 핵심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대학입시 경쟁에 얽매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부족한 실정이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정도에서 10.5% 정도가 '상'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 3학년은 약 7%, 고등학교 1학년은 6% 정도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에서도 우리나라 아동들의 읽기, 수학, 과학에 대한 성취수준은 높은 반면, 자기주도적 학습, 자신감 및 협동학습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1]. 즉, 우리나라 교육의 학력수준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학습에 대한 동기는 하위권이며 외국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잘 배우는 반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주도적 학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습의 책임감을 갖도록 학습자에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3, 29]. 동기는 학습을 위한 선행필수조건으로 학습상황에서의 성공을 촉진시키고, 학습에서의 성공은 학습동기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는 지속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1]. 학습동기는 학생이 학습에 있어서 스스로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자기결정성 동기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14]. Deci 외의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은 인간의 세 가지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충

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창의적 행동,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 자존감, 유연한 인지적 처리, 삶의 만족, 수행, 그리고 인내 등이 촉진된다고 간주하는 이론이다[15]. 자기결정성이 높은 동기는 곧 자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능감에 영향을 주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있게 과제를 지속한다. 자기결정성 동기는 자기조절 학습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9, 46, 50]. 아직까지 자기결정성 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성취 관련 연구를 통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외적으로 동기화된 아동은 성취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낮은 수준이었으나, 내적으로 동기화된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 또, 자기결정성은 학업성취와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20, 30, 44, 46]. 학업상황에서 아동들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으면 노력수준과 성취도가 높은 반면, 자기결정성 동기가 낮으면 노력과 성적이 모두 낮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초등 아동을 대상으로 수학, 읽기 과목을 측정한 결과 내적동기(Intrinsic Regulation)와 학업 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나 시험을 보기위해 공부한 아동보다 내적동기로 학습한 아동들이 개념이해가 더 빨랐다[18].

한편 자기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은 부모양육행동으로 아동이 양육행동을 성취 지향적, 애정적, 자율적으로 지각할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았다[3]. 반면, 아동들이 자신의 환경을 압박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 부정적으로 지각할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이 낮게 나타났다[20].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이 양육행동을 부정적 스트레스로 지각하면 자기주도적 학습발달이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행동과는 상반된 개념의 심리적 통제는 압박적인 스트레스로 지각될 수 있다. 심리적 통제란 자녀의 심리적 및 정서적 발달에 개입하는 통제방식으로 아동의 생각, 감정, 자기표현이나 부모에 대한 예측을 간섭하고 조종하는 양육행동이다[4].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등의 자율성 발달을 어렵게 한다 [6]. 따라서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초등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이는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렇듯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과정이나 기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를 매개 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결정성 동기 요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중요한 요인은 아동이 학습에 책임감을 갖도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3, 22]으로, 이는 자기결정성 동기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심리적 환경에 결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아동의 자기결정성 동기의 발달은 환경적 변인 중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7, 32, 34, 40]. 특히 부모 심리적 통제는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능력, 공격성, 적응과 문제행동, 등 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된 동기화를 저해하고 외현적인 동기만을 요구함으로써 아동의 자기결정성 동기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 22]. 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심리적통제에 대한 지각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아동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더 높았고, 학업성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외재적 동기인 외재적 조절과 부과된 조절 에 부정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공감 등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내재적 동기인 확인된 조절과 내재적 조절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4, 46].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자녀는 외적 보상이나 압력 혹은 제약에 순응하기 위한 타율적 행위로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자기결정성이 낮으며, 이는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15].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양육은 아동을 하여금 부모에게 의존하게 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하는 요인으로써, 낮은 학업수행능력을 보이며 통제적 양육방식을 나타내는 조건부 관심은 아동의 자율적인 내적 동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1], 이러한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볼 때 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은 아동스스로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자기결정 동기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심리적 통제를 받은 경험은 아동으로 하여금 학업에 대한 지나친 압력과 기대로 지각되어, 내적 스트레스를 높이고 내재적 동기를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가 아동의 낮은 학업수행능력에 대해 처벌적 반응을 보이고 정서적으로 낙담하게 만드는 행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과제 수행을 보다 잘 하고자 하는 자율적 동기를 저해하게 된다[7, 18].

이렇듯 자기주도학습은 부모의 심리적통제, 자기결정성 동기간의 관계에서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구체적 과정이나 기제를 파악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자기주도학습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과정과 방법에 관한 기술적 측면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며, 자기주도학습을 학습자 특성으로 보는 관점에서 심리정서적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아동의 정서적 경험을 설명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변인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어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주도적 학습 발달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매개 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자기결정성 동기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가 자기주도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아동이 지각한 자기결정성 동기는 모의 심리적통제와 자기주도적 학습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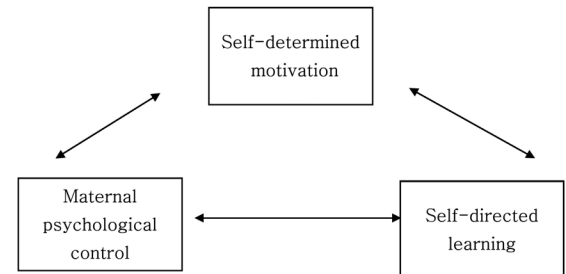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3개 학교 14개 학급의 6학년 아동 4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남아 215명(47%), 여아 242명(53%)이며, 출생순위는 외동이가 65명(14.2%), 첫째 83명(18.2%), 둘째 77명(16.8%), 셋째이상 232명(50.8%)로 나타났다. 아버지 연령은 보면 30-39세 25명(5.6%), 40-49세 381명(83.5%), 50-59세 34명(7.5%)로 40대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 연령은 30-39세 101명(22.1%), 40-49세 331명(72.5%), 50-59세 11명(2.4%)로 역시 40대가 많았다. 학력별로는 아버지의 경우, 고교중퇴 또는 졸업이 46명(10.1%),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 16명(3.5%), 대졸 282명(61.7%), 대학원 이상 100명(21.9%) 으로 대졸이상이 80% 이상이었다. 어머니 학력을 보면 고교중퇴 또는 졸업이 73(16%),

전문대졸 또는 대학중퇴19명(4.2%), 대졸276명(60.4%), 대학원 이상 74명(16.2%) 으로 대졸이상이 70%이상이었다. 직업별로는 아버지의 경우, 생산감독 및 서비스직 16명(3.5%), 자영업 및 일반판매직 30명(6.6%), 일반 사무직 및 보안 업무 10명(2.2%),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292명(63.9%), 전문직 및 기업주 80명(17.5%)로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284명(62.1%), 취업모 173명(37.9%)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도구

1)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검사도구는 Guglielmino가 개발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척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이해란이 초등학교 아동 학습자 수준에 맞는 어휘 사용과 이해 정도를 고려하고 한국 교육상황에 맞게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17,38]. 본 도구는 기회에 대한 개방성, 자아개념, 독립성, 책임감, 흥미, 방법등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전체 신뢰도는 .95였다.

2)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결정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Deci 외의 이론을 근거[15, 16]로 한 Ryan 외의 SRQ-A와 Hayamizu의 척도를 Kim이 한국의 일반적인 학습상황에 적합한 문항들로 통합 수정하여 개발한 한국형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K-SPQ-A)를 사용하였다[18, 25, 47]. Kim에 의하며 K-SPQ-A의 요인구조 분석결과 변별 타당도가 낮은 요인인 통합된 원인과 확인된 원인은 확인/ 통합된 원인으로 통합되었다. 연구도구는 외적 원인, 부과된 원인, 확인/통합된 원인, 내재적 원인의 하위영역으로, 각 영역마다 6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Ryan 외의 학업과 관련된 질문들보다 더 일반적이며 특정한 상황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됨을 피하기 위해 “왜 공부하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만을 제시하고 각각의 답변으로 표현되는 동기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외적원인, 부과된 원인, 확인/통합된 원인, 내적원인의 순으로 신뢰도 계수는 .79, .76, .88, .87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81이다.

3) 심리적 통제

본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모의 심리통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Barber가 개발한 심리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Report: PCS-YSR)를 정윤주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6, 13]. 이 척도는 부모의 심리통제 수준에 대하여 아동이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자기표현 제한, 감정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의 6개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은 Likert의 3점 척도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세분화 하여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감정을 제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심리적 자유를 구속한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표현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의 순으로 신뢰도는 .75, .61, .70, .59, .72, .74였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2011년 10월 중에 경기도에 있는 3개 초등학교 6학년 14개 학급 517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자습시간 중에 각 반 담임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 후 수거하여 457부를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관련 변인들 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NFI (Normed fit index)등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측정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의 하위 요인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 하위변인, 자기 결정성 동기의 외적 원인, 내적 원인, 자기 주도 학습, 등 연구 변인들 간에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이에 더해 독립변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각각 10 이하 (1.324-2.541)와 0.1 이상(0.369-0.756)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Table 1.
Inter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 = 457)

	1	2	3	4	5	6	7	8	9	10	11
Psychological control											
Ⓐ	-										
Ⓑ	.38***	-									
Ⓒ	.62***	.35***	-								
Ⓓ	.34***	.41***	.37***	-							
Ⓔ	.63***	.33***	.64***	.39***	-						
Ⓕ	.55***	.34***	.63***	.35***	.66***	-					
Self-determined motivation											
Ⓖ	.21***	.04	.19***	.04	.19***	.16**	-				
Ⓗ	.21***	.06	.23***	.08	.24***	.17***	.75***	-			
Ⓒ	-.22***	.01	-.20***	.00	-.26***	-.21***	-.47***	-.54***	-		
Ⓖ	-.17***	.04	-.15***	.02	-.13**	-.14**	-.62***	-.62***	.58***	-	
Self-directed learning											
	-.22***	-.04	-.21***	-.08	-.22***	-.18***	-.88***	-.87***	.58***	.71***	-

Nate. Ⓐ Constrain verbal expression Ⓑ Invalidating feelings Ⓒ Personal attack Ⓓ Guilt induction Ⓔ Love withdrawal Ⓕ Erratic emotional behavior Ⓖ External regulation Ⓗ Introjected regulation Ⓒ Identified regulation Ⓖ Integrated regulation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변인들 간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Kim에 의하면 요인부하

량(β)은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40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된다[34].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이에 해당하였으나, 자기 결정성 동기의 '부가된 원인'은 .30 이하의 수치를 보여 이를 삭제한 후, 재분석하였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chi^2 = 393.465$ ($df = 87$), CFI = .924, NFI = .905, TLI = .908, RMSEA = .088로 나타나 RMSEA 적합지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 MI)가 보수적인 기준 9이상인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 공분산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결

Table 2.
Fit index of observed model (N = 457)

Variables	χ^2	df	NFI	TLI	CFI	RMSEA (LO90~HI90)
Index	322.295	86	.922	.928	.941	.078 (.069~.087)

Table 3.
Path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N = 457)

Latent variables	Estimated variables	B	β	S.E.	C.R.	p
Psychological control	Constrain verbal expression	.864	.760	.053	16.298	***
	Invalidating feelings	.484	.454	.052	9.325	***
	Personal attack	.916	.795	.054	17.116	***
	Guilt induction	.595	.474	.061	9.766	***
	Love withdrawal	.886	.823	.050	17.731	***
	Erratic emotional behavior	1.000	.773			
Self-determined motivation	External regulation	.513	.398	.065	7.930	***
	Identified integrated regulation	.855	.684	.062	13.868	***
	Internal regulation	1.000	.762			
Self-directed learning	Openness	.930	.831	.043	21.397	***
	Self-concept	.944	.813	.046	20.704	***
	Independence	.951	.856	.042	22.435	***
	Responsibility	.859	.829	.040	21.337	***
	Interest	1.026	.856	.046	22.448	***
	Learning method	1.000	.828			

*** $p < .001$

정성 동기-내적원인(e9)와 자기주도적 학습-흥미(e14)간의 공분산을 연결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34](Table 2, Figure 1). 그 결과 $\chi^2 = 322.295$ ($df = 86$), CFI = .941, NFI = .922, TLI = .928, RMSEA = .078로, CFI > .90, NFI > .90, TLI > .90, RMSEA < .08이라는 기준을 충족시켜 적합성이 검증되었다(Table 3).

4. 구조모형분석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측정 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 후, 어머니의 심리적인 통제와 자기결정성 동기가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

해 Figure 2의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Tabel 4와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 주도 학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039, p > .05$). 그러나 자기결정성 동기는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beta = .922, p < .00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도 자기결정성 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34, p < .001$).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기결정성 동기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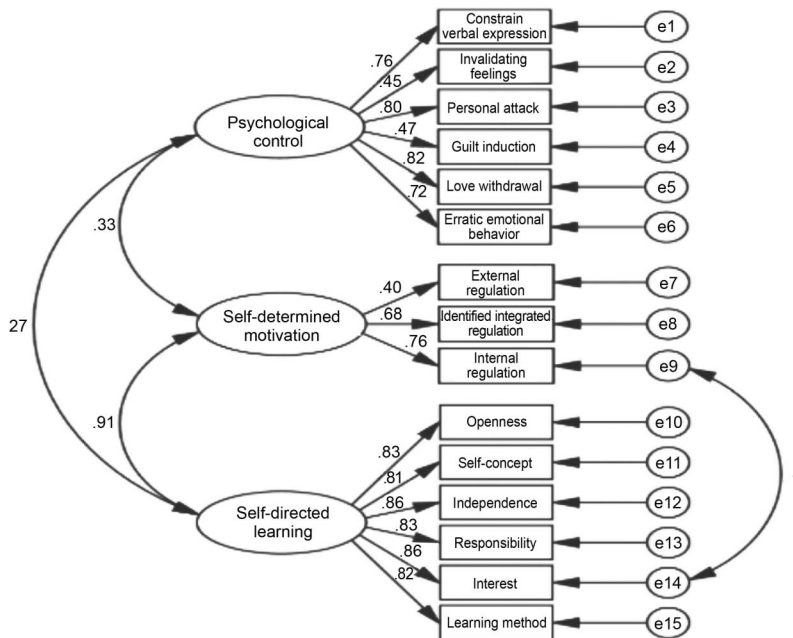


Figure 2. Factor loadings of observed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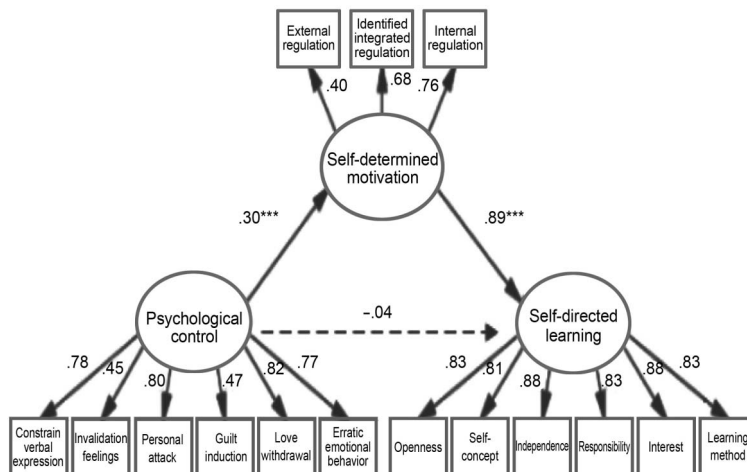


Figure 3. Mediating model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between psychological control and self-directed learning.

Table 4.
Estimates of latent variables (N = 457)

Path of latent variables	B	β	S.E.	C.R.	p
Psychological control → Self-directed learning	-.027	-.039	.028	-.967	.334
Self-determined motivation → Self-directed learning	.843	.922	.061	13.816	***
Psychological control → Self-determined motivation	.255	.334	.045	5.701	***

*** $p < .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of model (N = 457)

Path of latent variables	Bootstrapping			R ²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sychological control → Self-directed learning	-.039	.308**	.269***	.83
Self-determined motivation → Self-directed learning	.922***	-	.922***	
Psychological control → Self-determined motivation	.334***	-	.334***	.11

** $p < .05$, *** $p < .001$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및 자기결정성 동기가 아동의 자기 주도학습에 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5), 아동의 자기주도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결정성 동기($\beta = .922, p < .001$)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동기의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그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주도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beta = -.039, p > .05$), 자기결정성 동기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308, p < .05$). 각각의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결정성 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83%이었고,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 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11%이었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결정성 동기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위하여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자기결정성 동기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주도 학습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의 심리적 통제 중에서 언어적 표현제한, 비난, 애정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 등을 높게 지각 할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부모

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수용적이고 개방적일수록 학습동기 수준이 높고[11, 14, 32] 자기주도적 학습준비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낮을수록 아동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아 학업성적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10, 4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학습몰입 수준이 낮아지며, 학업상황에서 자기결정성 동기가 높을수록 노력수준과 성취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9].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외적강요나 심리적 통제는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둘째, 아동의 자기결정성 동기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를 보면 자기결정성 동기의 모든 변인이 자기주도적 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외적원인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낮았고, 확인/통합된 원인과 내적원인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자기결정성이 높은 내재적 동기를 가진 아동일수록 학업성취가 높고[51], 확인된 동기를 가진 아동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반면[27], 외적 동기가 학업성취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며, 내적동기는 학업성취와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13, 46]. 이러한 결과는 자기결정성이 높은 내재적 동기라 하더라도 그 유형에 따라 자기 주도 학습과의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며 또한 자기결정성이 낮은 외재적 동기라 하더라도 자기 주도 학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시사한다. 즉 기존의 내재적 동기 및 외재적 동기의 이분법에 따라 자기 주도 학습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들보다 더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아직까지 선행연구에서도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자기결정성 동기 유형과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즉, 자기 결정성이 높은 내재적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와의 상관성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추후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국적 교육상황에서 자기결정성 동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적 동기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나[27] 이는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내적동기가 증가한다는 국외연구[15]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율적이고 내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입시교육 상황에서 성적과 같은 변인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내적인 동기여의해 학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 사실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면 자기 결정성 동기가 학업 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선행 학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아동이 학습 내용 자체에 흥미를 가질 시간적 여유도 없고, 진도 위주로 학업이 진행되기 쉽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교사나 부모의 의도에 순응하는 아동이 자기 결정성 동기가 높은 아동보다 학업 성취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학업 성취는 높으나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이 부족한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교육적 상황에서 자기결정성 동기가 자기주도 학습에 주는 영향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는 세부적인 경험적 연구가 더 많이 시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모의 심리적 통제 중에서 언어적 표현제한은 자기결정성 동기의 외적원인과 내적원인 유의한 영향을 미쳐, 언어적 표현제한이 높을수록 외적원인은 높고, 내적원인은 낮았다. 또, 모의 심리적 통제 중에서 감정불인정은 자기결정성 동기의 확인/통합된 원인과 내적원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감정불인정이 높을수록 확인/통합된 원인과 내적원인이 높았으며, 모의 심리통제중에서 죄책감 유발은 자기결정성 동기의 확인/통합된 원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죄책감 유발이 높을수록 확인/통합된 원인은 낮았다. 마지막으로 모의 심리적 통제 중에서 애정절회는 자기결정성 동기의 확인/통합된 원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애정절회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 동기가 낮았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기결정성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들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결정성 수준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자기결정성의 관계를 밝힌 연구와 유사하다[10, 35, 40, 44].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은 자기결정성동기가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부

정적인 영향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아동이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적이며 심리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기결정성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업상황에서 학생들의 자기결정성동기가 높으면 노력수준과 성취도가 높은 반면, 자기결정성이 낮으면 노력수준과 성적이 낮다는 연구 결과들[51] 고려해 볼 때 자기주도적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모는 심리적 통제를 지양하고 아동의 자기결정성의 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아동의 자율성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간의 관계는 모의 심리적통제와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외적원인, 확인/통합된 원인, 내적원인이 완전 매개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자기결정성동기를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있어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자기결정성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하였다. 특히 아동의 자기결정성동기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주도 학습에서 자기 결정성 동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즉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에 영향력을 갖고 통제하는 가족관계에서 아동에게 명령, 언어체벌 등의 부정적인 양육을 수행하게 되면, 아동은 자기결정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져 자기결정성 동기를 발달시킬 수 없게 된다. 이는 자기주도 학습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 뿐 아니라 아동은 외적 보상에 의존하는 행동 발달로 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위한 자율성 발달이 어렵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 발달을 위하여 양육과정에서 자기 결정성 동기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함양 시켜줄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 관련연구는 학습 과정과 방법 측면에서 이루어 졌으나 본 연구는 아동 정서적 경험을 다룬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바람직한 양육방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율성 발달의 결과이며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자기주도 학습 발달을 위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위한 자녀양육방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양육행동은 구체적 행동통제보다는 심리적 통제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므로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 자기결정

성 동기와 자기주도학습 능력간의 연구를 한국적 교육상황에서 구체적인 기제 과정을 규명하고 궁극적으로 학업성취에 주는 영향력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자기결정성 동기측면이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야한다.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하여 내적동기를 유발시키면서 외적보상 등에 대한 영향력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려운 교육현실에서 자기결정성동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아동의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내적인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유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세부적인 연구가 많이 시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주는 학업 관련 자기결정성 동기 변인을 측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학업뿐 아니라 아동의 삶의 전반적 영역을 포함하여 자기결정성 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

1. Anderman, E. M., & Maehr, M. L. (1994). Motivation and schooling in the middle grad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4*, 287-307.
2. Bak, J. H.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learning motiv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won, Korea.
3.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4), 586-598.
4.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5. Barber, B. K. (Eds.). (2002).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 Barber, B. K., & Harmon. E.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 In B. K. Barber (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7. Barber, B. K., Olsen, J. A.,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8. Block, J. (1982). Assimilation, accommodation, and the dynamics of personality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33*(2), 281-295.
9.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10. Chang, K. M. (2007). The influence of children's perceived paternal/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ra-extra version characteristics on their self-determination and school achieve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School, 20*(1), 165-179.
11. Cho, H., & Kwon, H.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ve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1), 62-64.
12. Chung, Y. J. (2004). Children's percep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Moderator effects of children's sex and peer acceptance. *Journal of Korean Child Studies, 25*(6), 205-223.
13.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14.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319-338.
15. Dusek, J. B., & Litovsky, V. G. (1985). Perceptions of child-rearing and self-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5), 373-387.
16. Grolnick, W. S., Ryan R. M., & Deci, E. L. (1991). The inner resources for school performance: Motivation mediator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508-517.
17. Guglilmino. (1987). Item analysis of Guglilmino's self-directed learning reakiness sc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6*(4), 331-336.

18. Hayamizu, T. (1997). Between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Examination of reasons for academic study based on the theory of internalization.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39, 98-108.
19. Huh, S. J. (2009). *The relationship among motivation types of self-determination,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s of elementar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20. Hwang J. E., & Cho, H. I.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self-determined motivation for learning of middle school- aged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4), 27-52.
21. Jang, K. M. (2007). The influence of children's perceived paternal/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ra-extra version characteristics on their self-determination and school achieve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1), 165-179.
22. Jang, S. H., Jung, J. H., Lee, S. S., Park, J. H., & Seo, S. W.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tyle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Association Study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0(1), 107-126.
23. Jung, J. A. (2008). *Impact of parenting attitude, academic self-efficacy and achievement-goal orientation on self-regulated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Korea.
24. Jung, T. O. (2002). *Study on the analysi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causes reflected into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25. Kim, A. Y. (2002). Validation of taxonomy of academic motivatio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69-187.
26. Kim, A. Y., & Cha, J. E. (2010).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yle on their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cademic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Mediating role of children's autonomous motiv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3), 563-582.
27. Kim, A. Y., & Oh, S. A. (2001). Classification of motivation on the continuum of self-determin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5(4), 97-119.
28. Kim, E. J. (2007).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college freshman's life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1(3), 539-555.
29. Kim, E. J. (2010). *The relationship among paternal/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intra-extraversion characteristics, ego-resilience, self-determi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30. Kim, E. Y.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determination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of the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31. Kim, H. (2010). *Analysis of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Seoul: KDI.
32. Kim, J. H., Kim, E. J., & Hong, S. H. (2006).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 243-264.
33. Kim, J. Y. (2008). *A study on the parents' verbal control modes and th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34. Kim, K. S. (2007). *NEW AMOS 16.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annare, Seoul, Korea.
35. Kim, K. Y. (2001).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hildren's perception to their parental upbringing attitude on children's E.Q.*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36. Kim, S. A. (2008). *The impact of child's perceived father's/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on child's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37.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to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Follet Publisers.
38. Lee, H. R. (2009).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child-rearing practice,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directed*

- learning perceived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ju, Korea.
39. Lee, H. S. (2003). A study on parenting attitudes and school achievement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2*(2), 137-250.
40. Lee, J. H. (2009).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meta-cogni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nd school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41. Lee, M. B. (200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n school achievem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42. Lee, N. Y. (2008). *Academic achievement and ego-resilience according to adolescent motivational types of self-determin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43. Lee, S. Y.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44. Lim, J. H., & Ryu, J. H. (2007). The impact of self-determin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19*(2), 163-181
45. Moon, J. H.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aring practices between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on gift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46. Park, J. M. (2010).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styles, self-control, and self-regulated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47.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st, 57*(5), 749-761.
48. Song, I. S. (2006). *Self-directed learning.* Seoul: Hakjisa.
49. Song, J. Y. (2005). *Influence of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the object of achievement in studying on the school record and the study effici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50. Song, K. A. (2006). A study on influence of self-esteem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The Korea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dministration, 10*(3), 177-202.
51. Vallerand, R. J., Fortier, M. S., & Guay, F. (1997). Self-determination and persistence in a real-life setting: Toward a motivational model of high school dropou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hysiology, 72*(5), 1161-1176.

접 수 일 : 2012년 10월 4일

심사시작일 : 2012년 10월 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일